

담배에 대한 나의 의견을 써 본다면, 나는 후자 쪽이다. 담배는 커피나 홍차 등과 같이 기호식품의 일종이다. 즉, 담배를 피울 것인가 피우지 않을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이다. 물론 담배는 몸에 좋지 않다. 그러나, 담배는 마약 등과는 조금 다르다. 마약처럼 다소간 중독증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담배는 그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담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다던가 이혼했다던가 하는 일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흡연은 개인의 문제이다. 담배라고 하는 것은 기호식품인데 왜 규칙을 정해서 금지하는 것인가? 담배가 몸에 그다지 좋지 않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중학생 이상의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에 20개피이상 피우는 것일까는 잘 모르겠다. 나도 몇번인가 피워 본 일이 있지만, 담배의 맛이라던가 피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피우지 않는다. 물론,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로 피우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의 주위에서 자주 담배를 피운다면, 그 사람은 아마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그 이후로 그 사람 옆에서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담배에 관한 문제는 자발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금연」 등의 규칙을 정한다던가 TV의 담배 광고를 방송금지 한다던가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자신이 건강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피우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어찌 되었든 나는 피우고 싶다. 즐거우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피울 것이다. 결국, 담배는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